



2022 EMERiCs·AIF 신흥지역 체험기 공모전 당선작 중남미 권역

멕시코인이 사는 멕시코

박소슬

멕시코. 이 나라가 주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우선 나의 경우에는 365일 신이 나 있고 힘껏 올라간 콧수염을 가진 아저씨, 신이 난 아저씨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는 타코,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들을 수 있는 음악소리였다. 하지만 누군가는 총기 사건을, 마약을, 카르텔을 떠올리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가보기로 했다. 이렇게 극단적인 이미지들을 떠올리게 하는 국가는 어떤 곳이었을까 라는 의문에 교환학생에 냉큼 지원했고, 1지망 학교로 멕시코를 선택했다. 6개월을 살았다. 학교를 다니면서 관광지도 다니고, 페스티벌도 가봤다. 숨은 곳곳을 다니며 멕시코를 있는 힘껏 느껴보려고 애썼다. 덕분에 멕시코에 대해 몇 가지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정(情)의 민족

우리나라도 한 정(情) 한다. 하지만 사회가 점점 발전하면서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정(情)의 빈도가 줄어들곤 했었는데, 멕시코에 와서 그 빈자리를 가득, 아니 넘치도록 채울 수 있었다. 멕시코 사람들이 넘치는 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데에는 얼마 걸리지 않는다. 길거리에 나가서 눈을 마주치면 10명 중 9명은 'Hola(올라)'하고 인사를 건넨다. 처음 인사를 받은 나는 외국은 다 이렇구나 했는데, 북미와 남미, 유럽을 다녀본 결과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정이 많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은 것은 여행을 하던 중이었다. 코로나 이후로 투어상품의 종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원하는 투어를 하지 못했다. 나와 언니는 우리 끼리 길을 찾아가보자는 도전정신을 불태웠다. 하지만 멕시코의 버스 시간과 출발지가 일정하지 않아 쉽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이라고 추측되는 곳 건너편에서 시장 아주머니들에게 질문을 했다. 하지만 아주머니들의 빠른 말솜씨에 우리는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고, 그냥 아는 척을 해버렸다. 어찌지 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건너편에 버스가 왔고, 우리는 긴가민가하며 긴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한 아주머니가 우리의 손을 잡고 버스를 태우셨다. 알고 보니 말을 다 건네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 보신 거였다. 우리가 잘 가는지, 혹시 버스를 놓치거나 길을 잃지는 않을지. 버스에 타고 놀란 마음을 진정시킨 후에야 아주머니들의 따뜻한 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또, 한 번은 학교 수업을 들을 때의 일이었다. 혼자 교환학생으로 전공수업을 듣게 되어 수업 방식이나 학교 시스템을 잘 모른 채 헤매고 있었다. 그러자 4명의 친구들이 다가와 여러 가지를 챙겨주었다. 그리고 멕시코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잡기

도 했고, 여러 간식거리들을 챙겨와 먹어보라며 나눠 주기도 했다. 이 친구들이 참 착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했으나, 어느 수업을 가든 상관없이 대부분의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 질문해 주고 도움을 주었다. 낯선 환경 속 어려운 상황에서 만난 정 많은 멕시코 사람들의 도움은 그 어느 때보다 고마웠다. 멕시코 사람들의 넘치는 정은 멕시코에 하루를 살더라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Manana, 내일

우리나라에 ‘빨리빨리’가 있다면 멕시코에는 ‘마나냐’가 있다. 이 단어의 뜻은 ‘내일’이다. 한 단어로 멕시코를 설명하라고 한다면 난 주저 없이 이 단어를 택할 것이다. 그만큼 멕시코는 여유롭고, 멕시

칸들은 더 여유롭다. 문이나 보일러를 수리하는 데에는 적어도 3일은 잡아야 하고, 버스나 지하철이 제시간에 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시외 버스가 8시간 지연된 적도 있으니 말이다.

이 마나냐를 가장 절실하게 느낄 수 있던 순간은 학교에서 하는 팀 프로젝트 수행할 때였다. 당시에는 멕시코의 마나냐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랐다. 나는 빨리 프로젝트를 끝내고 놀고 싶은 마음에 단체 채팅방에 자료를 정리해서 올리고, 질문들이나 보충할 부분들을 보냈다. 하지만 아무도 답이 없었다. 나를 무시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과제 제출 3시간 전 단체 채팅방은 불이 났다. 누구보다 원활하게 소통이 되었고,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과제를 완



아주머니 덕에 무사히 도착한 ‘이에르베 엘 아구아’

료했다. 이 팀만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했던 나는 세계에서 가장 오만한 사람이 되었다. 다음 팀도, 그 다음 팀도 항상 과제 제출 3시간 전부터만 연락이 되었다.

그렇다. 멕시코의 마냐냐는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처럼 상징성을 지닌다. 성격이 급해서 뭐든 빠리를 외치며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달리 멕시코는 마냐냐를 외치며 현재에 집중한다. 지금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지금이 아니기에 내일로 미룬다. 그런 의미에서 미룬다는 표현보다는 지금을 즐긴다고 표현하고 싶다. 그들은 항상 현재를 중요시하며 지금 주어진 그 상황들을 즐기며 문제들을 해결한다. 그런 의미에서 마냐냐는 내가 살아가는 방향성에 변화를 주기도 했다.

틀려도 괜찮아

길을 걷거나, 음식을 기다리거나, 쇼핑을 할 때에 정이 많은 멕시코 사람들은 먼저 말을 걸어준다. 우리나라였으면 오지랴이라는 단어로 치부될 수 있는 상황들이 멕시코에서는 친절이고 배려로 행해진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단순히 오지랴이라는 단어로 그런 상황들을 명명하며 남에게 신경 쓰는 것을 꺼리고 조심스러워하는 이유는 아마 ‘내 말로 저 사람이 잘못되면 어찌지’라는 불안함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다면 말을 하지 않고, 질문을 하더라도 잘 모르겠다고 한다. 물론 나도 그렇다.



어딜 들어가도 알록달록한 색을 가지고 있는 멕시코

하지만 멕시코 사람들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주려고 한다. 여행을 할 때에 아주머니가 우리를 버스에 태운 것도 아마 그것 중 하나였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조금은 있다. 자신만만하게 알려준 내용들이 무조건 맞지는 않다는 말이다. 아마 그들에게는 틀린 내용이 아닐 것이다. 그저 자신들이 경험해 본 것들을 이야기해주는 것이니까. 처음에는 잘못된 내용들을 알려준 그들이 원망스러웠다.

한 번은 여행 중에 도움을 준 사람의 말대로 길을 걷다 원치 않는 곳에 와버렸다. 생각했던 곳과는 완전 다른 곳이었지만 어쩌다 보니 그곳의 매력에 빠졌다. 오히려 기대하며 원했던 곳보다 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여행이 끝나고 나는 그 순간들을 회상하며 틀려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살아가면서 실수하거나 실패해도 다시 돌아가면 되는 것이고, 절망스러운 순간에 패배하지 말고 그 순간에서 또 하나의 배움을 얻는다면 그 시간들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몸소 느꼈다. 틀리더라도 자신 있게 도움을 주는 멕시코들 덕분에 인생의 큰 배움을 얻을 수 있었다.

멕시코는 내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어버렸다. 경주 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오던 시간들이 무색해질 만큼 느낌의 미학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정 많고, 현재에 집중하며 틀려도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그곳은 어쩌면 나를 넘어서서 너무 빠른 속도로 달려 넘어질 것 같은 현대사회의 쉼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멕시코에는 신난 콧수염의 아저씨도, 타코도, 음악 소리도 있다. 그리고 마약도, 카르텔도, 총기 사건도 있다. 하지만 그런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것보다 멕시코라는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며 순간들을 즐기면서 행복한 멕시코인들이 있다는 것이 이 나라의 가장 큰 이미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의도치 않게 오게 된 의문의 마을





본 원고는 EMERiCs와 AIF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후원하는 신흥국 체험 수기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르며, 본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삽입된 이미지는 모두 저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저자의 동의 없이 사용을 금합니다.